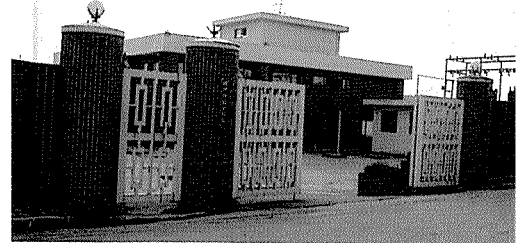




◀ '세진제품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제품을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창업정신은 세진가족에게 신앙과도 같은 것이다.

▼ 92년 3월 가동되기 시작한 음성공장. 2000년 이후의 세진을 염두에 두고 넉넉하게, 제대로 지은 공장이다.



업체탐방

쇼케이스 전문업체 세진산업

흔들림없이 걸어온 20년

모든 유통업체가 마찬가지로 일테지만 제과업계 만큼 실내장식과 상품진열(DISPAL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곳도 드물것이다. 똑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디스플레이되느냐에 따라 상품가치가 다르게 결정되고 매출증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관기능과 장식적 기능을 함께 지닌 쇼케이스는 우리 업계 점포연출의 '주연급'에 해당되는 요소로서, 쇼케이스에 대한 제과인들의 관심이 새삼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대로 만들어진 쇼케이스를 찾는 제과인이라면 누구나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업체가 바로 세진산업(대표 양구하)이다.

세진산업이 쇼케이스 생산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73년, 정확히 20년간 한품목에만 전념해온 문자 그대로 '전문업체'이다.

서울대학교 공대 기계과를 졸업한 양사장이 쇼케이스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신진자동차에서 국산부품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조립금속 기계장비를 국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쇼케이스 생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위해 일본 기술자를 데려오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구로구 신도림동에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의 스테인레스 가공기술이나 정밀 용접 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긍지와 노력만큼은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업계 선두주자로서 쇼케이스에 관한 한 수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세진이지만 사훈은 무척 간단명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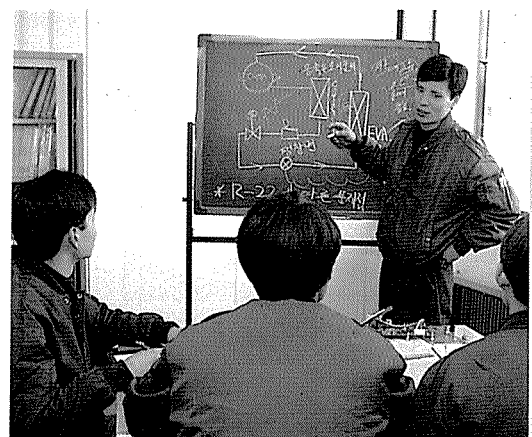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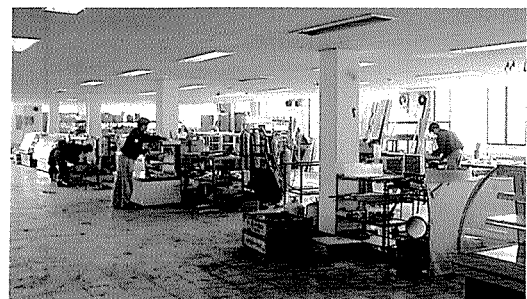
'깨끗한 제품, 정성스럽게 만들자.' 20년 동안 고집스럽게 한 품목만을 생산해온 전문 제조업체다운 사훈이다.

충북 음성군 농공단지내 3천평 대지위에 지어진 공장을 둘러보고 나면 세진의 사훈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잘 정돈된 공장내부는 물론 식당, 기숙사 등 부대시설도 세진의 '청결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등이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로

▼ 넓고 쾌적한 작업공간에서 생산에 몰두하고 있는 세진가족들. 신라명과, 고려당 등에 납품될 '명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 저온다습형 첨단 쇼케이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세진의 엔지니어들. 쇼케이스 생산기술에 관한 한 선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열의가 뜨겁기만 하다.



만들고 있다는 세진 쇼케이스의 특징은 무엇보다 앞선 기술력에 있다는 것이 이 회사 생산과장 강대경 씨의 설명이다.

“저희 쇼케이스는 4면 모두 복층(이중) 유리를 채택하고 있어 온도유지 기능이 뛰어나지요. 또한 스테인레스 절곡 및 용접기술이 뛰어나므로 내구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진만의 노하우를 보여주는 것은 역시 전자 콘트롤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콘트롤러는 200여개가 넘는 쇼케이스 부품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부품으로서, 쇼케이스 내부의 온도변화를 재빨리 감지하여 빵 보관에 알맞은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고난도 부품이다.

쇼케이스의 ‘두뇌’ 격에 해당하는 콘트롤러는 지난해 10월 세진의 기술진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생산했고 93년 들어 전 제품에 장착되고 있다.

세진 기술진의 당면목표는 저온에서도 고습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쇼케이스 개발. 선진국 제품과 달리 우리나라의 쇼케이스는 빙점에 가까운 저온과 90% 이상의 고습도를 동시에 유지하는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강대경 과장의 분석이다.

현재 5명의 전문기술진이 실험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94년에는 저온고습형 첨단 쇼케이스가 출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사업다각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양사장의 답변은 다시 쇼케이스로 이어진다. “아직은

사업다각화보다 쇼케이스 선두로서 정상을 굳히는 일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세진의 94년도 경영목표는 ‘품질은 높게, 가격은 낮게’. 쇼케이스에 대한 제과점주들의 요구가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전면 도어를 제거한 에어커튼식 오픈케이스 등 제품다양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춤으로서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잡고 있다.

얼마전 세진가족에게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영업사원 한명이 충주의 모 제과점에서 1976년에 세진이 만든 올스테인레스 쇼케이스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진가족 모두는 다시 한번 장인정신을 가다듬게 되었고, 앞으로 이



▲세진 쇼케이스가 설치된 잡살의 한 제과점. 쇼케이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과점의 인테리어와 맵시있게 조화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

▼생산의 첫단계인 절단공정. 정해진 치수만큼 한치의 오차 없이 스테인레스판을 절단해야 한다.



◀신제품 탄생의 현장인 제품설계실. 품질은 물론 디자인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세진의 노력은 설계단계부터 시작된다.

▲세진 쇼케이스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 콘트롤러. 92년 세진 기술진이 자체 개발에 성공, 전 제품에 장착하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

▼“우리 회사가 최고의 전문업체니까 저 역시 최고의 쇼케이스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기술자의 모습이 아름답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이래 20년을 쇼케이스와 살아온 양구하 사장. 중소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일에 희의를 느낄때도 많지만 ‘쇼케이스=세진’이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해 외길을 걷는다.

쇼케이스는 신제품과 임무교대하여 음성공장 전시관에 社寶로 모셔지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깨끗한 제품, 정성스럽게 만들자’는 사훈을 신앙처럼 지켜왔다는 세진기업의 20년. 걸어온 길보다는 가야할 길을 많이 남겨둔 우리 제과업계로서 소중한 자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에 걸맞는 명품을 만들어 제과제빵문화에 기여하겠다는 세진의 약속이 어떻게 결실을 맺게될런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